

中-印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배경과 전망

작성자 : 최윤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 3460-1039】

主要內容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4월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였음.
- 양국 정상은 지난 40년 동안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어왔던 국경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합의와 무역 및 투자 증진 등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결의하는 한편 군사, 문화, 과학 분야의 교류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12개 합의서에 서명했음.
- 최근 양국간 교역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전년도(76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1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인도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인도의 IT소프트웨어 업체와 중국의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양국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협력관계가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른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지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각기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간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ASEAN+3 구도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한국도 인도, 중국과 ASEAN까지를 아우르는 범아시아 지역통합의 구도하에서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양국관계 개요

가. 중-인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 인도는 1949년 중국의 공산정권 수립시 이를 승인하였고, 중국의 티벳 합병을 묵인했으며, 반동 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분담하는 등 1947년 독립 이후 초기 중국과 인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카슈미르 지역의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수자원, 국경 분쟁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음.
 - 양국의 국경선은 1914년 영국의 인도 통치시기에 당시 영국령이던 인도와 티벳 사이의 국경선으로 채택되었던 맥마혼 라인(McMahon Line)이 인도의 독립 후에도 중국과의 북쪽 경계선(1,030 킬로미터)으로 간주되어왔음.
 - 그러나 동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은 중국이 1956~1957년 서티벳과 중국본토 연결을 위해 카슈미르 지역의 인도 영토인 악사이 칭(Aksai Chin)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한데 이어 라다카(Ladaka)를 침공하면서 이를 계기로 1962년 중-인 전쟁이 발발했음.
 -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전쟁 이후, 병력을 국경에 주둔시켜 왔으며, 이때 중국이 점령한 악사이 칭 지역은 아루나찰 프라데쉬(Arunachal Pradesh)주 지역의 국경선 획정문제와 함께 양국간의 국경문제로 남게 되었음.
 - 인도는 중국이 카슈미르 지역을 부당하게 점령했다고 비난해 왔으며 중국은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쉬주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음.
 - 동 전쟁으로 양국 외교관계는 1976년까지 단절되었고, 제2차 및 제3차 인-파 전쟁시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음.
-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과 인도가 모두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고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은 이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입장에서 공동의 발전을 이룬다는 win-win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1992년 중국의 이붕 총리가 중국 총리로서는 31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여 국경

문제의 조속한 해결노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양국은 교역 및 경제협력 등 양국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음.

- 1999년 정부차원의 공식대화를 재개한 이후 인도의 나라야난 대통령이 2000년 6월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봉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주용기 중국 총리가 각각 2001년과 2002년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2003년 7월에는 바즈파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함.

□ 이러한 정부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함께 그동안 실무급에서 계속되어 온 국경협상을 2003년말부터는 고위급(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증진을 도모함

- 양국은 최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더불어 지난 2003년 6월 인도 바즈파이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 국경분쟁 해결과 경제협력을 위한 최초의 양국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는 등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는 지난 2003년 6월 인도 바즈파이 총리의 중국 국빈 방문시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양국 최초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바 있음.

- 동 선언문에는 양국의 국경문제 해결과 국경 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밖에 11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문에 서명했음.
- 또한 바즈파이 총리는 원자바오 총리와 면담시 양국간 100억 달러 교역 목표 달성을 위해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자고 제안했으며, 인도가 소프트웨어를, 중국이 하드웨어를 세계시장에 합작하여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전달했음.
- 한편 인도의 중국방문 대표단에는 인도 산업계를 대표하는 CII, FICCI, ASSOCHAM 등의 고위 기업인들¹⁾이 대거 합류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동 방문의 최고 관심사임을 입증하였음.

나. 최근의 경제관계

1) 대표단에 포함된 주요 인도 기업인 단체는 인도경제인연합(Confederation of India Industries, CII), 인도상공회의의(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FICCI), 인도상공회연합(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of India, ASSOCHAM) 등임.

□ 인도와 중국의 경제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한 이후부터 확대되어왔음.

- 1978년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과 달리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특히 1992년 라오 총리의 동방지향정책(Look East policy)²⁾을 기점으로 對아시아 외교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양국간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2005 회계연도(이하 2004년도)³⁾에는 136억 1,000만 달러로 2003년도의 76억 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중국은 인도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음.

- 2004년도 인도의 對중국 수출은 80.5% 증가한 76억 8,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77% 증가한 59억 3,000만 달러로 17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이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의 對중국 수출 중 40%를 차지하는 철광석, 플라스틱 재료, 철강, 화학제품 및 콩기름 등과 같은 원자재, 중간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통적으로 천연자원과 기타 일차산품이 주류를 이루던 인도의 對중국 수출은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및 기계류 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기계 및 정밀기계류의 수출은 2002~2003년도 기간 중 10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음.
- 현재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2, 3년내 중국은 인도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될 것임.

□ 반면 중국의 對인도 수출은 반면 천연자원, 제조업 제품, 기초 및 중간 수준의 기술 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전자제품과 유기 화학물이 2003년도 중국의 對인도 수출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견사 및 직물, 전기·전자를 제외한 일반기계류, 전자제품, 무기화학물 등이 5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음.

2) 1992년 인도의 라오(P. V. Narasimha Rao) 총리는 "Look East" 정책을 채택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도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협력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개방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표현했음.

3)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고, 주요지표의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임.

<표 1> 인도의 對중국 교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역규모	1,822	2,334	2,988	4,768	7,008	13,610
수 출	539	831	952	1,975	2,955	7,680
수 입	1,283	1,502	2,036	2,792	4,053	5,930
무역수지	-744	-671	-1,083	-817	-1,098	1,750

주: 연도는 인도의 회계연도 기준. 2004년도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 까지임.

자료: 인도수출입통계은행(Export Import Data Bank, Department of Commerce)

□ 양국은 2003년 기준 전세계의 FDI를 540억 달러 및 43억 달러를 유치하는 FDI 대상국이나, 서로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임.

-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對인도 투자는 1991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인도 정부가 승인한 2억 3,160만 달러 중 실제 유입된 금액은 63만 달러에 그쳤으며, 2004년 하반기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동년 9월까지의 누적 투자금액은 87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對인도 투자는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하이얼 그룹(Haier Group) 등 제조업 부문의 對인도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까지 중국의 對인도 투자는 통신, 운송, 전기기기, 금융 부문 등을 중심으로 2,06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4)

□ 한편 인도 재무부는 인도의 對중국 투자규모가 1996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인도 정부의 승인 기준으로 9,65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하였음. 5)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인도의 對중국 투자사업은 101개이며 실투자금액은 7,91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규모는 작지만 중국에 진출한 인도 기업은 철 및 강철, 섬유, 화학, 자동차 부품,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당, 오락, 문화산업,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4) 중국 정부는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해 중국 기업들이 신고 전에 투자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 통계상의 차이는 홍콩을 경유한 투자도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중국에 합작회사나 자회사를 설립한 인도 기업은 Aptech, NIIT, Tata Consultancy Services, Infosys와 같은 IT 소프트웨어 기업을 포함하여 Ranbaxy, Aurobindo Pharmaceuticals, Dr. Reddy's Laboratories, Sundram Fasteners Ltd., Aditya Birla Group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이처럼 양국간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의 해외투자(ODI)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양국간 외교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금번 정상회담의 주요성과

- 양국 정상은 2003년 발표한 양국간 최초의 공동선언문인 'Declaration on Principles for Relations and Comprehensive Cooperation'에서 제시한 양국 관계의 비전과 협력의 기본틀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가.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

- 양국 정상은 지난 40년 동안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어왔던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음.
- 양국의 협력에는 국경 분쟁이 우선과제로 지적되어 왔던 바, 양국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나아가 양측은 최근 양국간 유용한 군사 분야의 정보교환 및 교류가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 및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러한 군사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의함.
- 또한 양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티벳, 대만, 인도의 시킴(Sikkim)주 등 영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음.
- 양국은 중국의 티벳자치구와 인도령 시킴주간의 무역을 국경무역(border trade)으로 인정하는 2003년의 각서에 대한 만족을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인

도는 중국의 티벳 통치를 인정하고 중국은 시킴주를 인도의 영토로 인정함을 재확인하였음.

- 특히 동 선언문에서 인도는 티벳자치구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인도내에서 행해지는 티벳인들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또한 인도는 ‘중국이 하나(one China)’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동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힘.

나. FTA 체결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공동작업반 운영에 합의

- 양국은 2008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으며, 양국이 교역과 경제협력의 잠재적 확대 및 보완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한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JSG)이 지난 3월말 제출한 보고서의 제안을 검토 및 이행을 위한 각료급 공동경제그룹(Joint Economic Group, JEG) 설치를 지시
- 원 총리는 양국이 사업, 원자재 확보 관련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 문제를 완화한다면 양국간 무역이 급증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

□ 보다 역동적이고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는 금융대화제도(Financial Dialogue Mechanism)를 설치하고 동 제도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and Protection Agreement, BIPA)에 자문을 제공토록 함.

- 동 방문시 양국은 BIPA를 두고 6, 7회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IPA는 중국에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수익의 자유로운 본국 송환과 양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될 것임.

□ 양국 정부는 인도와 중국의 검역 당국간에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실시하기 위한 MOU 체결을 위해 공동실무그룹(Joint Working Group)을 구성기로 함.

□ 중국은 인도산 쌀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중국의 관련법과 제

도를 검토하여 동 영향의 분석을 시행할 것을 약속함.

다. IT협력

- 양국 정부는 인도의 IT 및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와 중국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도 방문 첫날인 4월 9일 인도 IT 단지의 관련 업계 및 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중국의 하드웨어 기술이 힘을 합하면 양국이 함께 세계 IT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
 - 원자바오 총리가 최초의 인도 방문에서 방갈로르를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인도와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총리 방문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원자바오 총리는 9일 방갈로르에 위치한 인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업체인 Tata Group을 방문한데 이어, 방문 이틀째인 10일에는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Huawei Technologies Co).의 인도 현지 공장을 방문했음.
 - 특히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지닌 중국과 인도의 IT협력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대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계 IT시장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됨.

라. 기타

- 양국간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합의하고 양국 인사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한편 중-인 전략대화 채널 등 양국간 대화기재를 최대한 활용기로 함.
- 양국은 교육, 과학 및 기술, 보건, 정보, 관광, 청소년 교류, 농업, 낙농업 개발, 스포츠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에 힘쓸 것을 결의하고,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상호 자격증 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함.
-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중국과 인도는 2005년 국교수립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각 상대국 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06년을 '인도-중국 우정의 해(Year of India-China Friendship)'로 선포했음.
- 또한 인도 건축양식에 따른 불교사원을 중국의 Henan 지역에 건립하는 등 양국간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을 도모기로 함.

□ 중국은 인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지지의사를 표명

- 양국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중국은 인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음.
- 중국은 인도가 UN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한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UN의 개혁과정에 긴밀한 의논과 협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함.

□ 그 밖에 인도와 중국 정부는 다음 12건의 협력협정 및 보고서에 서명하였음.

- 인도-중국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제한과 지침에 대한 협의
- 양국간 포괄적 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연구그룹의 보고서
- 군사지역 CBMs 이행방식에 대한 합의
- 상호 세관 협력 및 지원에 대한 합의
- 인도-중국 금융대화 구성에 대한 MOU
- 민간항공에 대한 MOU
- 인도산 포도의 중국 수출시 검역요건에 대한 규약
- 인도산 조롱박(bitter gourds)의 중국 수출시 검역요건에 대한 규약
- Suttlej/Langqen Zangbo 강의 범람시 중국의 인도측 정보 제공에 대한 MOU
- 인도-중국 영화산업 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약
- 인도의 세계문제위원회(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와 중국의 외교문제 기관(Chinese People'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간의 협력에 대한 MOU
- 인도 건축양식에 따른 불교사원을 중국 Luoyang 지역의 White horse Temple 서쪽에 건축한다는 내용의 각서 등

<표 2> 중-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분 야	세 부 내 용
국경분쟁	-평화적인 국경분쟁 해결 방식에 합의 -인도는 티벳자율지역(TAR)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고 'one China'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 -중국은 시킴주가 인도 영토임을 인정
경제협력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공동실무그룹 결성 등
산업협력	IT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군사협력	군사 정보 교환 등 교류 확대
인도의 UN 안보리 진출	중국은 인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 표명
농산물 수입	중국은 인도산 포도, 쌀 등의 수입 확대를 고려기로 결정
문화교류	-2005년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 기획 -2006년을 '인도-중국 우정의 해'로 선정 -중국에 인도식 불교사원 건립 등

3. 중-인 관계의 전망과 시사점

가. 양국 관계의 향후 전망

- 2003년 인도 바즈파이 총리의 중국 방문에 이어 금번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는 정치·경제·사회·국방·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및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인도는 현재의 영토 질서를 유지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적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의 토대를 다져나갈 것으로 관측됨.
- 원 총리는 동 인도 방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동 정상 회담이 매우 성공적(extremely successful)이었다고 평가
-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정치적 반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신흥 경제대국으로서의 공통점이 많은 양국은 앞으로도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인 경쟁자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을 원자바오 총리의 남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 방문지로 정하고,⁶⁾ 중-파 FTA를 위한 조기자유화협정(Early Harvest Agreement)을 포함하여 국방, 관광, 경제 및 통상협력, 도로 및 항공 연계 등 10여개의 협정들을 동시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양국은 최근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훨씬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6.9%에 달할 전망이며, 중국의 경우는 2003년도 경제성장률이 8.5%에 이어 향후 5년 동안 최소한 8%대는 유지할 전망이다.

- 인도가 빠른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2030년경이면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여 인구 면에서도 중국을 위협할 전망이다.

- 유엔에 따르면 중국은 강력한 가족정책으로 가족당 자녀수가 1.7명으로 2050년에 15억9300만 명에 달할 예정인 반면 인도는 가족당 평균 자녀수가 3명으로 2030년이면 인도 인구는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인도의 경우 2004년 석유 소비량이 세계 6위였는데, 이중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5년 사이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무려 8% 증가했음.

- 중국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1/3을 대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일 석유 수입량은 현재 2백만 배럴에서 2030년경이면 1,000만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나.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 이처럼 중국과 인도간에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FTA 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투자협정이나 기관간의 MOU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협력 강화가 예상됨.

6) 금번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및 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4월 5일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등 4개국 순방에 포함된 일정이었음.

- 전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양국이 FTA 체결에 합의하면 사실상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인도-중국간 FTA 체결은 전세계의 관심사임.
- 양국은 2004년 인도-중국간 FTA를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Sino-Indian Joint Study Group(JSJG)을 결성하고 지난 2005년 3월 말 보고서를 제출했음.
- 동 보고서는 양국간의 FTA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제품에 인도시장을 개방하는데 대한 인도 업계의 반대로 중국과의 FTA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 對美 수출의 90% 이상이 제조업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낮은 인도 국내 제조업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인바, 이에 Kamal Nath 인도 상무장관은 국내 업계의 반대이유의 타당성을 중시할 것이라고 발표
 - 당초 인도는 FTA 타당성 연구 착수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시 JSJG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작업반(Joint Task Force) 구성에 합의하였음.
- 한편 인도와 중국이 각기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ASEAN+3 구도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한국도 인도, 중국과 ASEAN까지를 아우르는 범아시아 지역통합의 구도하에서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동북아 시대와 동아시아 시대를 넘어 이제는 인도까지 포함하는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실적으로 중국, 인도와 같은 경제대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은 對중국, 對인도 산업별 협력방안 모색, 투자협정 개정, BIMSTEC이나 방콕협정 등과 같은 여타 지역협력 구도 속에서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전세계 에너지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 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한국은 중-인 협력구도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자원외교정책 수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